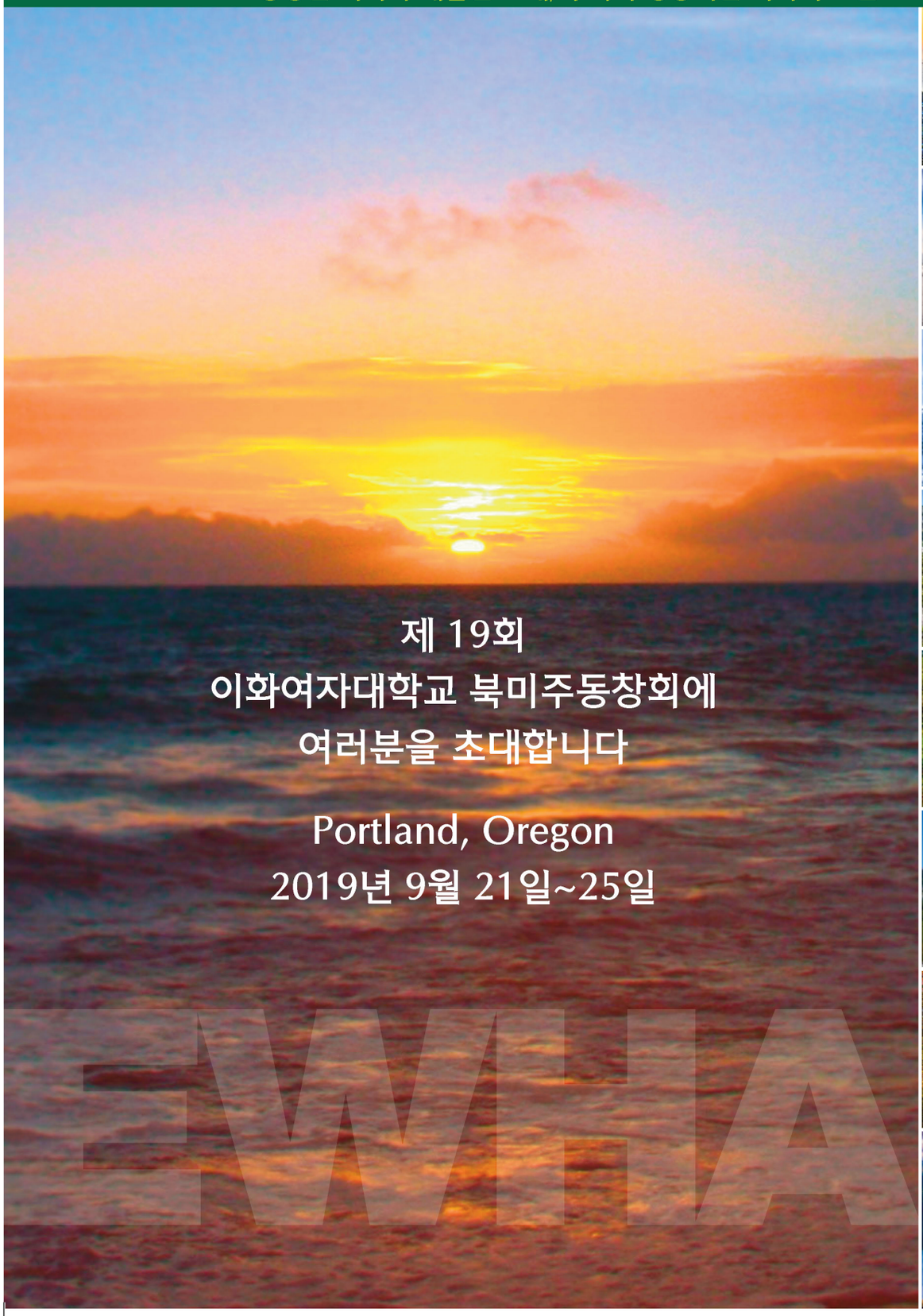
북미주 이화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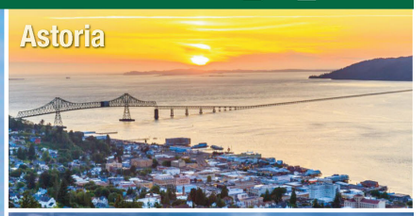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HA WUAANA
www.ewhaian.org
E-mail: EWUAANA@gmail.com
Phone: (714)-606-6679
발행인: 박정옥 편집인: 임성숙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2019년 7월





眞善美

교훈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을 진(眞), 선(善), 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온 진, 선, 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金尙榕)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 선, 미'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眞 진

진은 지(知), 즉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화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대학이 지식의 탐구를 게을리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더구나 지혜의 원천이며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식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문 연구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善 선

선은 덕(德)이다. 지식은 인간에게 선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지고지순의 아름다운 덕성,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국만리 타향의 벽안의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며, 공동체 사회와 인류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이화인들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갈고 닦으며, 나아가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美 미

미는 조화(調和)를 의미한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예술적 정서이다.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와 독특한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화가 추구하는 미(美)의 참된 개념이다. 이화는 전방향의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갈 창조적인 지식인을 양성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차례 Table of Contents

- 인사말 4
- 의료원장 인사말 / 의료원 소식 6
- 이대 의료원 연혁 8
- Editorial 10
- 동창 탐방 11
- 의대 활동 소식 14
- 장학사업 16
- 2018년 총회 사진 18
- 2018년 총회 보고 22
- 시 23
- 기행문 24
- 수필 28
- 동창 활동 소식 30
- 임원 명단 34
- 프로그램 / Agenda 35
- 2020 연례모임 36

사랑하는 북미주 이화 동문 여러분,

푸른 초목이 무성하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아름다운 계절에 동문 여러분들의 평안을 바랍니다. 2019 한해 이사장 직을 다시 맡으며 작년에 못다한 일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고, 선후배님들의 많은 편달을 바라며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북미주동창회가 그동안 이화를 사랑하는 선후배들의 신실한 봉사와 헌신, 또 많은 동창들의 끊임없는 재정적인 후원으로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립 15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북미주 이화동창] 기념책자를 발간했고,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우리 모두 가슴이 벅차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2000년 미국과 캐나다의 17개 주로부터 130명 이상의 뜻있는 동창들이 발기이사가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 창립된 북미주동창회는 미 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로 인정을 받아 2001년에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장학위원회가 조직,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북미주로 유학 오는 모교의 재학생과 북미주 동창 자녀들에게 꾸준히 장학금(매년 $10,000)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5년간 뉴욕 퀸즈에서 뉴욕 동창들이 인력 봉사해 온 컴퓨터 교실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한국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에 두 차례 후원하는 등 여러 단체에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창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참된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한 일로 지난 2014년 12월 30일에 서울시 강서구 마곡에 착공한 이대서울병원이 4년만에 완공돼 위용을 드러내며, 지난 5월 23일에 개원식을 했다는 반갑고 자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는 북미주 의과대학동창회와 함께 상호 협조하며, 계속해서 이대서울병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 9월 Portland, Oregon에서 만나 즐거운 대화의 시간, 배움의 시간, 아름다운 여행, 더 나아가 서로의 삶에 힘을 더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깃드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이사장 **최 경 숙** (영문, 66)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

온 자연이 저마다 뽐내는 계절, 동문님들께 안부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올 가을 Portland, Oregon에서 열릴 제19회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연례 총회에 오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북미주동창들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이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이 됨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북미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등록이 한 달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동문들을 모시지 못하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창회는 여러 임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인 연례총회 장소를 물색하고, 총회 후 멋진 여행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례모임은 9월21일(토)부터 25일(수)까지 입니다. Workshop 주제로는 "Our Future Lif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및 21세기 기술 혁명"으로 NASA-JPL, Boeing에서 Research Fellow를 지내셨고, Cal Poly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신 이청 박사님을 모시고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또한 제 19회 북미주동창회 연례 총회가 있고 이어서 만찬과 유흥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회 후에 2박 3일간의 일정에 따라 Oregon 주의 자랑인 Crater Lake는 물론, Mt. Hood를 돌아보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만끽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Oregon 주 서해안의 멋진 태평양 바다를 배경으로 오손도손 사진도 찍고 저녁 무렵 바닷가 해변 Bonfire에 둘러 앉아 흥겨운 노래도 부르며, 우리의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례모임은 Oregon 주 북쪽 경계선인 Columbia River를 따라 달리며 Multnomah Falls와 Crown Points의 아름다운 풍경에 한껏 매료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올 가을 동문 여러분과의 반가운 만남을 고대하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회장 **박(허)정옥** (의대, 71)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로운 미래를 꿈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문병인입니다.

귀중한 동창회보의 지면을 허락해주셔서 해외에 계신인 이화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국과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를 잊지 않고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창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각층에서 훌륭한 업적을 내며 이화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시는 해외 동창 여러분 모두에게 애정 어린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계 곳곳에 이화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퍼져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기에 자랑스럽고 새로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의료원은 올해 2월 7일 이대서울병원 진료를 개시한 이후 5월 23일에는 정식 개원식을 갖고 대외적으로 이대서울병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대서울병원은 암, 심뇌혈관 질환, 장기 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 질환 치료를 특화하고 미래형 질환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국내 최초로 기준 병실 3인실, 전체 중환자실 1인실로 운영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병실 환경을 제공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병원의 중증 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GE 헬스케어의 '임상통합상황실'과 수술실 통합 시스템인 '스마트 수술실'을 운영하는 등 첨단 스마트 의료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환자 중심 첨단 병원입니다. 아울러적 이대서울병원은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해외 환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큰 장점이며, 5호선 발산역과 바로 연결되는 교통 편의성 또한 이대서울병원의서 자랑입니다.

이대서울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보듬는 '힐링의 공간'으로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병실 환경과 국제 수준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 의료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 의학을 선도할 여성 의학자와 의사를 양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 의과대학으로서 여성 의료인 육성에 앞장서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국내 의학 발전과 국제 의학 교류의 중심으로도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대서울병원 개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문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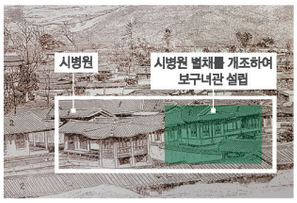
1. 복원된 보구녀관
2. 5호선 발산역과 연결되는 이대서울병원
3. 개원식
4.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5. 이대서울병원 전경

최초의 역사가 최고로 이어집니다

1885

의료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튼이
자택에서 진료 시작

1886



시병원 설립

윌리엄 스크랜튼이 이화학당 옆에 시병원 설립
스크랜튼 모자 요청으로 여의사 '메타 하워드'가
조선에 파견돼 시병원에서 여성 환자 진료 시작

1887

10월 국내 최초 여성 전용 병원 '보구녀관' 설립

남자 환자들과 함께 진료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용 병원, 보구녀관

1892

볼드윈 진료소 개원

보구녀관의 번창에 따라 동대문에
볼드윈 진료소 개원
보구녀관과 함께 양병원 체제 구축

2009

이대여성암병원 설립

1993

이대목동병원 설립

2019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
'이대서울병원' 개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1887년 이화학당 창설자 메리 F.스크랜턴 여사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녀관(普救女館)으로 출발해, '최상의 연구와 교육' 을 통한 '최선의 진료' 를 목표로 환자 중심 경영을 전개함으로써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치열한 경쟁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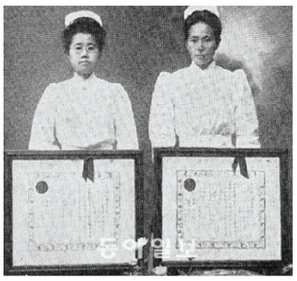
보구녀관이 길러낸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1903

보구녀관에 간호원 양성소 설립

에드먼즈 소장과 간호원 학생들
(첫 가관식: 1906)

1908



보구녀관 국내 최초의 간호사

'이 그레이스', '김 마르다' 배출

1912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 설립

볼드윈 진료소, 보구녀관이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통합
'붉은 벽돌로 짓고 흰 장식을 넣은
신식 건물'

1930

동대문부인병원으로 개편, 개칭

1954

신촌 분원 설립

1961

신촌 분원이 동대문병원에 통합

1952

'Ewha Healing Center'

한국전쟁, 부산

이화힐링센터

부산 대청동에서 6.25 피난민 치료 활동

1945

이대동대문병원 설립

Are we too old to be an Ewhaian?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의 모토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이는 참으로 의미있고 적절한 우리 동창의 표현이다. 더 나아가서는 133년 전 그리스도의 교육을 통하여 한국 여성을 만들고자 소망하며 시작된 "이화학당"의 큰 열매이고 보람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숭고한 뜻을 품고 1886년에 선교사 Mary Scranton 여사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와서 여성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생은 모이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여자 아이들은 이름도 제대로 없이 작은애, 예쁜이, 김씨딸 등으로 불렸으며, 12~14살이 되어 시집을 가면 경주댁, 예쁜이 엄마 등으로 불렸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눈이 파랗고 코가 큰 하얀 사람들을 도깨비라 부르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풍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해가 져서야 치마폭으로 몸을 가리고 나갈 수 있는 고달프고 희망이 없는 가련한 존재였다.

고종 황제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고, 3개월이 지나서 들어온 첫 학생이 간난이 그리고 10살된 김정동(박에스더)이 4번째 학생이었다. 일년 후 학생수는 5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돌아갈 집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이었기에 숙식을 제공 받으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선교사들은 보모이자 스승이었다. 새로운 비전으로 불모지였던 불운의 조선땅에 학생 한명을 데리고 소박히 시작된 이화학당이 133년이란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위세 당당한 22만명의 동창과 2만명의 영특한 재학생을 자랑하는 교육 기관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1887년 Scranton여사의 의사 아들 William씨가 여성 전용 병원 "보구여관"을 설립함으로 이화 학당은 더 널리 알려졌다. 1890년 여의사 Rosetta Hall이 의료 선교차 한국에 들어오면서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는 사업은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의 첫 열매가 박에스더! 10살에 이화학당에 들어온 김정동(박에스더)이 이화가 배출한 첫 여의사(한국의)이고, 첫 의료 선교사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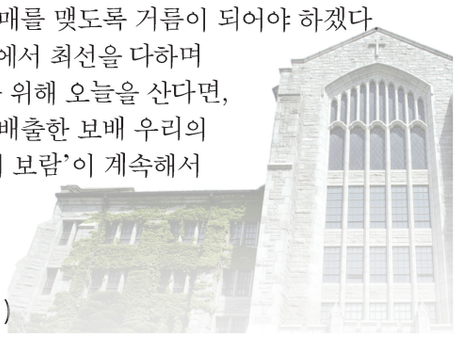
박에스더는 미국의 Baltimore Women's Medical College를 졸업하고, 1900년에 미국 북감리교 파송 의료선교사로 귀국하여 10년간 병을 치료하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34세의 이른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어진 삶은 짧았지만,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그녀의 봉사와 희생 정신은 계속 자라서 2019년에는 세계 최고의 병원 "이대서울병원" 으로 마곡이라는 신도시에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우뚝 서게 되었다.

나는 지난 5월 23일 새 병원 대 개원식에 참석해 초 현대식으로 짜임새 있는 병원 건물을 들러보며 단순히 멋진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속에 Healing touch가 감도는 분위기에 감개무량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계속 내 머리 속에 감도는 여러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한 개인의 존재를 향상"시키는 이화의 얼, 선구자들의 뜻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런지?
둘째: 이대서울병원이 실력있는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20세기의 보구여관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위해 국내외 동창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겠다.
셋째: 나는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이 새 병원을 위해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Am I too old? Is that all I could have done?"
소심해지는 마음을 접고 Scranton, Dr. Rosetta Hall 그리고 Dr. Esther Park 등 여러 선교사들의 편한 삶 대신 봉사와 희생을 삶의 최우선으로 살아 온 그들을 그려보며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시대 어린 나이에 가난하고 기회가 없을 때 무언가 새로움에 접해 배워야겠다는 모험심으로 이화학당에 첫 발을 디딘 우리의 대선배들 간난이, 예쁜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화라는 나무가 튼튼한 뿌리 위에 더 크고 곧게 자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거름이 되어야 하겠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박정옥 (의대, 71)

소녀 시절 꿈인 여의사가 되어 이제는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며 살아가는

이학혜 동문

(의대, 60)

이대서울병원 개원식을 맞으며 북미주 동창들은 설레는 마음과 함께 자랑스러움에 병원이 앞으로 '섬김과 나눔'의 이화 소명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했다.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려온 서울병원 개원 소식에 초청장을 받고도 참석할 수 없었던 북미주 의과대학동창회 초대 회장 이학혜 동문. 그녀의 기쁨에 가득 찼으면서도 아쉬웠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학혜(의대, 60) 동문은 어린 시절 이모 집에 병문안을 갔을 때 처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를 보며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지망했다고 한다. 1960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대부속병원에서 Intern 생활을 하던 중 1961년 도미, New York Jamaica Hospital에서 다시 Internship을 끝내고 Brooklyn에서 소아과 수련 1년차 생활을 했다.

그 당시만 해도 뉴욕에는 한인이 많지 않았다고 회고하며, 가장 친한 친구 남편의 소개로 1963년에 문교부 장학생으로 University of Georgia에서 공부하고 있던 부군 변종수(타계)씨를 만나 9월에 결혼을 하고 Georgia로 내려갔다고 한다. 변 선생님이 여름 방학 동안 뉴욕 한국 총영사관에 일하러 왔기에 두 사람의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사람의 인연은 예측할 수 없는 묘한 것이라고 미소 지으며 귀띔해 주었다. 80세를 훌쩍 넘으신 분이 아직도 이렇게 낭낭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성으로 다가오니, 소개받은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된 것이 충분히 상상이 된다.

이학혜 동문은 다시 Atlanta에 있는 Emory University에서 소아과 수련과정을 밟게 되었고, 남편은 Mercer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일하며 100마일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1년을 떨어져 살아야 했다며, 여의사의 어려웠던 시절을 말해준다. 그래도 그 때 아들 James가 태어나 기쁨을 주었고 아들 육아는 아빠 몫이었다고 한다. 남편이 Atlanta에 있는 Federal Reserve Bank에서 2년간 일을 끝내고 Tennessee 주 Memphis 대학에서 재정학 교수로 부임하게 되어, 이 동문은 State Hospital 소아과 병동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일하게 되었다.

1970년부터 Memphis에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학혜 동문은 2016년 7월 부군께서 대장암으로 83세로 돌아가시기까지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다. 지금은 아들 내외가 손자와 Memphis에서 살고 있고 고향 같은 그 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남편을 하늘 나라로 보낸 후 2년전 캘리포니아 Palo Alto로 옮겨 외손자들도 자주 만나고 무엇보다 의사인 딸 내외와 가까이 살아서 늘 마음이 든든하다고 솔직히 이야기한다.

이화여대 의대에 입학한 후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미재단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을 계속 받으며 공부한 이학혜 동문은 늘 고마웠던 그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젠가 자신도 남에게 베풀며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결실의 열매로 2005년에 장학금($100,000)을 설정, 국제 재단을 통해 모교의 우수한 의대생에게 수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그 장학금을 10년간 의대생 5명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으며, 해마다 학생들의 소식을 받을 때면 한없이 기쁜 마음이라고 한다.

"나의 생애의 제일 보람된 일은 2014년 Los Angeles에서 열린 북미주동창회 연례총회 때 이순남 의료원장의 제2부속병원 건립에 대한 청사진과 계획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후원금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동문 내외는 국제재단을 통해 후원금으로 $500,000(Stock)을 제2부속병원(현 이대서울병원) 건립금으로 기부했다. 착공 4년만에 서울시 마곡에 완공돼 위용을 드러내는 개원식에 직접 참석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지만, 그녀는 두 손 모아 힘껏 박수를 보내며 하나님의 가호 아래 소명을 다해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이학혜 동문은 2009년 북미주의 두 동창회가 통합하는 덴버 연례총회 때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를 발기, 2010년에 초대 회장직을 맡았다. 그 동안 모교 의과대학 발전과 서울병원 건립에 많은 기여를 해오며 북미주의 많은 동창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협조 하며 아름다운 동창회로 꾸준히 발전해 온 북미주동창회와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의 역대 회장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한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선교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며 열정있게 살아가는

성시희 동문

(물리, 70)

북미주동창회 연례총회 때면 새벽 기도회에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성시희 (물리, 70) 동문의 노후 삶 이야기 – 선교 하는 그녀의 열정 어린 헌신의 삶에 숙연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감동 감화되었다.

성시희 동문은 1970년 이대 물리과를 졸업하고 1972년 도미, 언니 성시오(간호, 69) 동문이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주 Glendale에 정착해 미국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물리과 출신으로는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간호사로 일하는 언니를 따라 Nursing School에 다니게 되었다. 1979년 치과의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1녀 2남을 키우며 이민생활을 열심히 살아왔다. 그 당시 주위에 배려 깊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행하는 미국인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자 주일에는 교회 주일학교에 잊지 않고 보냈다고 한다. 무종교 집안에서 자라 온 그녀지만 자녀들의 재촉으로 결국 본인도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귀띔해 준다.

성시희 동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큰고모의 권고로 새벽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며 믿음 생활 속에 마음의 평강을 찾았다고 조용히 이야기한다. 기도하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삶의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25년째 계속되는 새벽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녀의 하루의 첫 시작이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서서히 변화되었다. 자신감으로 꽉 차 있던 젊었던 시절에는 'I am something'인 줄 알았지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I am nothing' 임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녀는 1994년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50살이 넘어 간호사로 일하며 세자녀들의 엄마 몫도 감당하였다. part time으로 공부를 하느라 퍽 힘들었던 시절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졸업을 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고 솔직히 말해준다.

그녀는 선교하는 삶을 자신의 미래 삶의 우선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2015년 10월 지금 살고 있는 집 융자를 끝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온 그 날 밤. 본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성시희 동문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가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라"** (1Peter 1:23) – 얼마나 주님이 급하셨으면 견디다 못해 직접 주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한다.

같은 날 저녁 11시 30분 경 친구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한다. "INTERCP에서 목회자를 위한 Vision School이 3박 4일간 Angeles Crest Christian Camp에서 열리니,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오겠다" 고 해서 망설임 없이 같이 갔다. 과정을 마친 후 2016년, 이집트로 단기 선교 2주간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그녀의 첫번째 선교 사역이었다고 말한다. 그 후 매년 7월 시카고 Wheaton College에서 열리는 Mission Camp에서 다민족 선교인 1500명이 모여 하나님께서

현재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세미나도 수강하고, 개인 간증 등,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며 다음에 갈 선교지 선정 및 선교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한다.

2017년에는 INTERCP에서 짜준 4명이 한 그룹이 되어 러시아 남서쪽에 위치한 북 카프카스(North Caucasus)에 선교를 갔다. 이번 일정은 러시아 카스피에 도착하기 전 하룻밤을 낯선 러시아 공항 근처에서 머물러야만 했다고 한다. 언어도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지… 두려움으로 LA공항을 향했는데, 절차를 다 밟고 기다리던 중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 출발이 취소되는 바람에 LA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카스피에 직접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며 미소를 짓는다.

카스피에서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는 한국 선교사님의 지도 아래 성 동문 팀은 도시 선교로 대학 식당에서 대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점심을 나누며, 러시아어로 된 복음을 들려주었다. "복 류 빗 찌뱌 —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고 말하며, 그들이 요한복음 3:16 말씀을 소리내어 읽게 했다고 한다. 또한 사진을 찍어 서로 나눴다. 간증과 중보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했고, 이들도 장차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회고했다.

지방으로 사역을 갔을 때 밤이 되어 잘 곳을 구하던 중 뜻하지 않게 11살 소년 루스틴을 만나게 되어 그 소년의 가족 —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에게 기적같이 일어난 복음 전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다며, 그 때를 돌아보며 활짝 웃는다. 같은 팀에 있었던 김권사는 할머니께 어깨 마사지와 얼굴 팩으로, Andrew는 자녀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며 서로가 가까워졌고, 그 집에서 머물며 복음 전파가 가능했다. 다음 날 예배를 볼 때

할머니께서 '아멘' 하고 응답하는 소리를 듣고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다고 한다.

이튿날 끼샤 마을에서 영어 선생 카미스씨와의 만남은 그녀와 그 가족을 위해 복음 전파가 이미 예비된 것 같았다고 말한다. 카미스 선생은 벌써 한참 전부터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말에 우리 모두가 놀랐고, 헤어지기 전 그 가정을 위해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울고 있는 카미스 선생의 모습을 보며, "**이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LA에서 이 먼 곳 까지 보내셨나 보다.**" 라고 깨달으며 가슴이 뭉클했다고 한다.

다음 날 12월 24일에는 Russia 속국으로 이슬람 사원이 많은 Chechen으로 향했다. 이슬람교가 강한 그 곳에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다. 그 곳을 떠나 마지막 국가인 Ingushetia에서는 대학가에서 학생들을 찾아 선교하기로 하고 친교의 시간을 먼저 가졌다고 한다. 한류로 물든 이곳 대학생들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는 가운데 K-Pop도 들려주며 고려인이 만든 김치도 먹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 는 축복 기도를 한 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바쁜 일정으로 짜인 낯선 공산국가 러시아 안에서 선교 사역이었지만, 본인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슬며시 이야기한다. 앞으로 북 카프카스 지역이 더욱 복음화 되어 부흥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녀의 자녀들은 매년 여러 지역을 때론 위험한 곳으로 선교를 떠나는 어머니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Bible College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며 보람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에 감탄한다. 이제는 자녀들의 든든한 기도와 후원이 있기에 든든하다고 한다. 올 10월 아드님 결혼식을 앞두고 성시희 동문은 7월 Mission Camp 후에 2주간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서 네팔에 단기 선교를 다녀 올 계획이다.

북미주의과대학동창 여러분들께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의과대학동창회
회장 **장 명 주** (의대,77)

최초 여성병원 보구여관에서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어진 132년 역사적인 순간 'Grand Opening Ceremony'가 2019년 5월23일에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을 목적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19년에 드디어 완공이 된 이대서울병원 개원식에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 이사장 박정옥 동문과 함께 첫 발을 디딛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그 아름다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술성과 최신의 건축 양식…. 그러나, 주 목적이 환자 중심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시켜 준 이대서울병원 - 이것은 단순히 새롭고 멋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가운데 사랑과 healing이 서로 함께 엮어 나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대서울병원은 이곳을 찾은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병원과 차별화 된 일반 병실을 3인 1실로, 중환자실은 1인실로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반응 또한 우리의 느낌과 같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디자인 한 '살아 있는 기도실' 등 앞으로 북미주에 살고 있는 동창들도 '해외 이화 동창 의료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본교를 지켜 주신 이대병원 교수님들과 모든 의료원진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오늘을 만들었다고 깊게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성장이 새로운 단계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대서울병원의 설립 과정을 통해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와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가 본교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워싱톤에서 열렸던 동창회 총회모임에 문병인 의료원장님, 정성애 사회봉헌 실장 그리고 권정희 팀장이 직접 참가하셔서 북미주의 많은 동창들과의 열린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160억불의 기부금이 모금되었고, 2018년 기금 액정 삼십만불 중 2019년 5월에 십만 천불을 송금했습니다.

북미주의과대학 동창회는 이대서울병원 건립 후원금 모금과 동시에 의대 선교사업, 미국내 의과대학 동창회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에는 남가주 의대동창회(회장, 박정옥)에서 피크닉 모임을 통해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뜻 있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동창회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의과대학 동창회 소식

남가주 의대 동창회 연례모임 겸 피크닉이 2018년 9월 22일 Seal Beach에 있는 Leisure World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의대 동창 29명(59년 졸업부터 95년 졸업)과 배우자 15명이 참석해 총 44명이 오손도손 앉아서 오랜만에 반가운 회포도 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가주 동창회에서 양념 갈비와 여러가지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고, 신영숙(의대, 70) 동문이 직접 따온 무화가 열매, 허보(의대, 66) 동문이 준비 해온 와인 몇 병 등 오붓하게 모여 맛있는 음식으로 미각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싱글벙글 즐거운 마음으로 즉석갈비를 정성껏 구워 주신 부군님들 덕분에 우리는 더 편안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례 모임 겸 피크닉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71년도 졸업 동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 모임에서 남가주 동창들의 모교사랑의 저력을 보인 이대서울병원 건립 후원금 모금이 있었습니다. 19명의 동창들이 이미 약정하신 15만불에 더불어 피크닉에서 5만2천 300불 모금을 더 해서, 1년에서 5년간에 걸쳐 약정액을 포함해 $202,300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의 활성화와 의료원 후원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ww.ewhaian.org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2004년부터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는 북미주에 유학하는 모교의 인재들과 북미주에 거주하는 이화인의 대학생 자녀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작은 힘을 보태왔습니다.

사립대학 등록금이 5만불이 넘고, 주립대도 3만불이 넘는 현실에서 저희가 주는 장학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창의력이 있고, 장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인재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동창회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보람있고 좋은 투자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학금이 어느 학생에게는 internship을 할 수있는 기회를 주고, 어느 학생들에게는 학기 중 part time일을 줄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북미주동창회는 장학금을 한 해 만불씩 예산하고 지금까지 15년간 실행해 왔습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장학금 신청자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동창 여러분께서 크고 작게 장학금 모금에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속하여 동창회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여러 동문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20 장학금 신청서는 www.ewhaian.org에서 download하고, 필요한 서류는 장학금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2), 재학증명, essay등입니다. 2019/20년 장학금은 총 $10,000입니다.

신청 마감일: 2019년 8월 15일
보낼 곳: Hyoeun Cho Shorack, 4926 Regla Court, San Diego, CA 92122
Email: hshorack@san.rr.com

SCHOLARSHIP FUND

최경숙(영문, 66)동문의 부군 고 Dr. 권철두 박사의 기일을 기념하여 따님 부부 (Christine & Thomas Chun)는 2018년 10월 북미주동창회에 장학금($10,000)을 기증했다. 이 장학금은 한국에서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가운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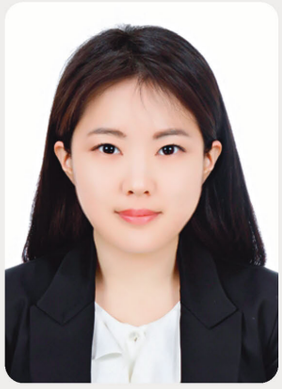
윤영희(의대, 70)동창은 돌아가신 부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Youngbin Kang Family Charitable Fund'를 조성하여 고Dr. Kang의 모교 서울대 자연계 대학, 고려대 의과대학과 이화여대 의과 대학에 각각 만불의 장학금을 보내기로 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장학금 만불은 매년 북미주동창회를 통해 보내지며, 성품, 지도력, 학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의대생 2명에게 $5,000씩 수여할 것을 부탁했다.

I really want to thank Ewha Alumnae for supporting my education at Johns Hopkins University. During this spring semester, I took a class called Introduction to Public Health and I enjoyed it so much that I declared my major as Public Health as a premed student. I am very excited to be taking more advanced classes during my junior/senior year at Johns Hopkin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where they host many public health conferences, frequently inviting world leaders and philanthropists such as Bill Clinton and Bill Gates to discuss about finding solutions for ongoing public health issues, such as opioid epidemic. Hopkins was my dream college, and Ewha Alumnae helped me tremendously to make that dream come true.

Thank you, Angela Yang

When I found out that I won the Ewha Alumnae Association Scholarship, I was beyond ecstatic. The transition to my first year at college had been an extremely nerve-racking and daunting experience for me and an even terrifying one for my bank account. Not only did I have to pay for Harvard's tuition, I also had to situate myself in a completely new environment a thousand miles away. This scholarship has helped me to study comfortably without the sustained anxiety of money and even to look for further opportunities to enrich my education; I am currently looking into a summer study-abroad opportunity in Germany that will be partially funded by my scholarship. I am very grateful for the assistance from the Alumnae Association that has allowed me the freedom to explore in ways that not everyone is lucky enough to do so.

Thank you, Tae Hwan Kim Harvard University



The cross-cultural insights and regional expertise I have developed over my formative years as a proud Korean-American, both as a student and a young professional, highlight the unique story of our country, confirming my desire to live out the values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a career spent in service to a higher cause. With the support afforded by the EWUAANA scholarship, I will be able to continue with my academic and professional pursuits of becoming a U.S. Foreign Service Officer and promoting American values and interests abroad, especially in the Asia-Pacific. By receiving the EWUAANA scholarship, I will be able to better focus on building expertise in and deepening my knowledg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during my graduate program at Johns Hopkins SAIS. I would like to sincerely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review committee for awarding me such a valuable scholarship and will strive harder to ensure this bears a fruitful, rewarding result in the future.

Sincerely, Jennifer Shin

먼저 저의 편지에 응답해 주신 이화동창회 장학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안에 여러가지 힘든 일들이 생겨서 지치고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았던 올 해,이화동창회 장학재단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저로서 선한 사마리아 인을 만나게 된 경험과 같습니다.

앞으로 박사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동시에 저의 공부를 통해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장학금을 베풀어 주신 이화동창회 장학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피아노과 졸업생 김희정 드림

2018총회 만찬 사진 제공: 김택수 (이희련 의대, 61) 부군

사진 제공: 김택수 (이희련 의대, 61) 부군 **2018총회 만찬**

2018 나들이 사진 제공: 김택수 (이희련 의대, 61) 부군

FREEDOM IS NOT FREE

2018년 연례총회 보고

제 18회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연례총회가 세계 정치의 일번지, 아름다운 미국의 수도 Washington, D.C.에서 10월25일(목)부터 29일(월)까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 각처에서 참석하신 많은 동창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성공적 행사이었다.

먼저 김홍자 행사준비위원장과 여러 준비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는 물론 북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사랑과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여러 선후배님들 그리고 2018년도 임원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첫째날 (10월 25일): Sheraton Premier Hotel에서 등록으로 시작, 근처 Thai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후 김홍자 Art Director와 미대 동창들의 '재회(Rival V)'란 주제로 준비한 다양하고 품격있는 예술작품 전시회를 감상하며, 화기애애한 북미주동창들의 '만남의 장'이 시작되었다.

둘째날 (26일): 안정옥(의대, 73) 예배 및 선교부장의 인도로 새벽예배를 드렸고, 워싱턴 D.C. 명소관광과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Mount Vernon에 위치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아름다운 생가를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30분부터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이정화(수학, 81)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 각 부서 활동보고, 동창회 운영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그리고 2019년도 총회 예산 상정 재정운영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이어 차기 회장 박정옥(의대, 71), 차기 이사장(최경숙 영문, 66)의 인준이 있었다.

세째날 (27일): 새벽예배 후 오전에는 교육부장 김영미(교심, 72) 동창의 사회로 유익한 Workshop의 시간이 있었다. 최진욱 박사의 "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시작했을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례도 보여 주셨다. 또한 조지타운대학교 문범강 교수의 "평양미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평양 미술의 핵심인 조선화란 무엇이며 현대미술과 어떤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가? 지난 8년간 평양미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양 미술계를 아홉 번 방문해 작가 인터뷰, 미술관 방문 전시회 참관 등 현장중심의 연구내용을 소개하며, 광주비엔날레 북한 미술전에서 전시되었던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D.C.의 숨겨진 명소 Hillwood Museum & Gardens을 방문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도 관람하기 힘든 Russian Faberge Eggs 등 귀중한 작품 감상과 가든 투어를 했다. 이날 저녁에는 김홍자 준비위원장(섬예, 58입, 07졸)의 사회로 연례총회와 만찬이 있었다. 김광자(불문, 66)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귀빈 소개와 교가 제창, 박종선 목사님의 기도, Larry Hogan 매릴랜드 주지사로부터 받은 'Ewha Womans University Week (October 21-28, 2018)-Proclamation' 낭독이 있었고, 우선애(조윤제 주미대사 부인, 영문, 79)동창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김희영(피아노, 75) 재무의 북미주동창회 재정보고, 장학금 수여자 발표와 '아름다운 이화인'(최경숙), 전 이사장 민경해(영문, 65), 전 회장 김계자(신방, 65),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사진을 담당해 주신 닥터 김택수(이희련 부군), 고 닥터 임종재 (한영숙 부군)께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또한 문병인 의료원장님의 이대서울병원 건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김정희(가정, 60) 동창과 장명주(의대, 77) 동창에게 'Ewha Light of Healing' 감사패를 증정, 의료원 발전후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박정옥 차기 회장과 최경숙 이사장의 인사말로 총회를 마치고, 권오화(가정, 61) 동창의 식사기도 후 아름다운 선율을 배경으로 Gala Dinner를 시작했다. '2부 순서'로는 심재희 (체육, 90)동창의 사회로 유흥시간(dance & sing along, 장기자랑 등)이 흥겹게 진행되었다.

넷째날 (28일): 김학숙(불문, 62) 목사님의 인도로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오색창연한 단풍놀이 겸 Shenandoah Valley로 향했다. 정성껏 준비한 한식 도시락으로 삼삼오오 모여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경이롭고 웅장한 Luray Caverns 동굴안의 신비한 체험을 했다. 돌아오는 길에 인디안 식당에서 특색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와 Club Lounge에서는 북미주 의대동창회 미팅이 있었고, Presidential Theater에서는 장경남 박사의 Gerontology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다섯째날 (29일): 마지막 날 오전에는 총회 후기 시간을 통해 참석한 동창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토론하며, 앞으로도 계속 북미주 동창회가 보람차고 유익한 모임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협조와 후원할 것을 다짐했다.

김광자 (불문, 66)

파피꽃 들의 왈츠

詩 이춘자 (약대, 62)

주홍 비단실로
곱게 수 놓은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들판

바람에 한들 한들
파피꽃 들의 우아한 무도회
예쁜 드레스 펼쳐 입고
춤추며 돌아가네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온통 달아오른 주홍빛 연궁
은은한 스트라우스의 소리없는 왈츠곡
은은히 바람이고 들려오네

감미로운 선율에
몸을 맡긴채
어느새 우리 모두
황홀함 속에 넋을 잃었네.

詩

가슴의 벗에게 보내는 글

강수상 (김정희 가정, 60) 부군

서로 알아주는 우정이
참되게 마음의 밑바닥을 치는지
가슴은 뿌듯하게 친밀한 속삭임으로 피어오르며
지체 못하게 생동감으로 넘쳐 흐른다

이제 광년의 세대를 만날 것 같다는
내일이 이렇게 설레임으로 차 오니
지구가 태양을 몇번 돌았든 상관없다
우리 서로 엉킨 유대감은
보람의 역사 숙성하게 뻗어 나가리라

다시 만나는 날을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하랴
지금부터 내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다

나의 가슴의 벗이여
옛 말로 우리를 "지기 지심(知己知心)" 이라 하였던가
내 영감이 싹트게 하는 원천은
내 가슴과 허물없이 통하는 그대의 보살핌에서이며
그렇게 우리의 친교는 깊어만 가고 있소

자칫하면 지나치는 내 감성을 알맞게 가라앉히고
내 지성의 예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속 깊은 벗의 배려는 내 삶의 축복이오

비록 세월은 덧없이 가버리며
지치고 어려운 날들이 닥쳐 온다해도
슬기롭게 풀어가게 하는 나의 저력은
벗의 반석같은 신뢰에서 생겨난 것이오

참되게 알아주는 벗이여
신뢰의 끈은 느긋하고 튼튼하여
새 세대를 키우고 즐기는
우리의 친교는 언제까지나 한결 하리라

쏠로 여행기
일본 여행 2018

전정자 (불문, 67)

재작년 여름 한 달 반 독일 쏠로 여행을 한 후, 지난 여름엔 일본 쏠로 여행을 했다. 떠나기 전 걱정하던 신칸센 타기는 3주의 일본 여행으로 마스터했다. 신칸센에는 히카리, 사쿠라, 고다마, 노조미 등 이름이 다른 몇 종류가 있다. *나의 쏠로 여행 준비물은 3주짜리 JRPass와 Mobile Wifi이었다. 참고로 JRPass는 외국인 여행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차 패스이다. 기차역에는 신칸센 타는 곳이 따로 있다. 그곳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기차의 트랙을 찾아서 트랙에 미리 가서 기다린다. 세상에서 제일 정확하다는 일본 기차는 정시에 도착해서 정확히 일분 정도 멈췄다가 떠난다. 도착 전에 두 줄로 자기 좌석이 있는 칸 앞에서 기다린다. 내리는 손님들이 다 내린 다음에 탄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기 시작하면 기차는 이미 달리고 있다. 에키벤을 꺼낼 차례다. 무지하게 덥던 바깥과 달리 신칸센 안은 쾌적하며 서늘하고 조용하다. 나중에는 신칸센 안이 시원하고 좋아서 더 많이 돌아 다녔다. 생각해 보니 한국에서도 기차타기와 줄서기, 전철타기는 모두에게 익숙하겠지만 자동차로만 다니는 LA 촌사람이라 이렇게 놀라웠다.

안내 방송이 영어로도 나오는 신칸센과 달리 보통 기차는 일본어 일색이다. 중학교 때 배운 한자가 바로 이럴 때 크게 도움을 준다. 나오시마로 가는 입구의 도시 다카마쓰는 '고송'이라는 걸 알면 쉬워진다.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기차 놓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바꿔 타며 가고 싶은 곳엘 다녔다. 떠나기 전 아침 산책 때마다 NHK 일본어 강좌 potcast를 귀에 꼽고 들었지만 고작 할 수 있는 말은 스미마셍과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뿐이다. 화장실은 여기저기 빨간 옷 입은 여자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질문할 필요가 없고, 스미마셍 보다는 'Excuse me'가 통했다. 얼떨결에 일본 여자로 보고 일본어로 설명해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영어 한 마디 못하는 사람들도 내 'Excuse me'에 극도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애썼다. 근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개중에는 아는 영어 다 동원하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 두 마디 영어에 손짓 섞어 친절하게 내 질문을 이해하며 답을 해주기도 했다.

일본 여행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도쿄의 오다이바에 있는 Mori Digital Art Museum 이었다. LA에서 표를 사 갖고 갔건만 땡볕에 줄이 길었다. heat stroke에 걸릴 거 같은 나의 노구를 끌고 박물관에 들어갔다. 그야말로 mind blowing! Los Angeles에 있는 Broad Museum의 Infinity Room은 방 하나지만, 이곳은 빌딩 전체가 독특하고 대단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인 방은 Wave Room이었다. 넓은 방 벽에는 사방으로 유키오에 화가 호쿠사이의 웨이브 스러운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듯했다. 방 한가운데 bean bag chair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나도 그 의자에 누워 내게 몰려 오는 웨이브에 빨려 들어갔다. 발 가까이까지 오는 파도가 부스러지는 모습을 보고 또 보았다. 그냥 그곳에서 잠들고 싶을 정도로….

여행중 스무 번의 일본식 호텔 조찬을 먹었다. 호텔을 택한 이유는 역에서 가깝고 찾기 쉬운 숙소로 최적이었다. AirBnB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한군데서 일주일 쯤 머문다면 에어비엔비도 좋겠지만 한곳에서 사나흘 정도만 묵었던 내 스케줄에는 호텔이 적당했다. 내가 묵은 호텔들은 비지니스 호텔이라는 중급 호텔들이고 나는 일본식 조찬을 포함해 예약했다. 그 중 최고가 오카야마 쿠라켄

호텔 조찬이었다.(사진참조) 그 고장 특식이라고 한자와 섞여 써있고, 작은 생선 조림은 어릴 때 집에서 보던 음식이라 반가웠다.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심쿵했다. 미야지마, 히로시마, 히메지, 다카마쑤, 나오시마 등 동경에서 멀어 질수록 그 고장 특산 생선요리들이 인상 깊었고 좋았다. 에키벤도 오카야마, 히로시마 것들이 도쿄 역에서 산 것 보다 좋았다.

에키벤은 기차서 먹는 벤또라는 느낌이 식사에 포함되어 각별했다. 아주 어렸을 때 부산으로 기차 여행하며 사 먹던 도시락, 천안 호두과자 등 기억이 나서 먹기 전부터 흥분되었다. 에키벤은 기차역, 신간센역, 트랙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우니, 이쿠라, 연어구이, 고등어, 장어, 흰밥, 쯔께모노, 명란… 가격은 10불이하부터 20불 정도까지. 호텔 예약은 Agoda와 Expedia 사이트를 이용하여 single, no smoking, breakfast included, free cancelation… 이런 식으로 미리 예약했다.

이번 여행의 목적 중 하나는 일본 음식을 충분하게 먹고 와야지… 이었는데 목적 달성을 충분히 했다. 그 중에서도 가마쿠라의 스시집의 경험은 왠지 훈훈하다. 관음사를 구경하고 골목길을 걸어 내려오다 이것 저것 선물을 사러 들어갔던 옷 가게 여주인이 가르쳐 준 식당은 바다가 가깝기도 하고 일본서 먹는 니기리는 어디서 먹든 기막혔지만 이 집 스시는 정말 일품이었다. 거품이 가득한 아사히 맥주를 마시며 자기네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던 손님들이 내게 친절한 눈길을 보냈다. 함께 셀피 사진까지 찍는 중 영어가 조금 되는 스시맨이 내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 로스엔젤스라고 하니 모두 놀라워 한다. 니혼진인 줄 알았다는 듯 말한다.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도시 여행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일본 시골에 오니 작은 사람들 나라에 온 듯 무언가 편안했다. 하나 같이 날씬하고 눈이 크고 옷 입은 폼이 났다. 물론 허리 구부러진 노인들도 많았지만. 출근 시간 신쥬쿠역에서 보는 검은 신사복 바지와 새하얀 와이샤쓰의 물결, 대체로 검정이나 회색이나 곤색 의상을 입은 모습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동경에 왔었지만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었다. 작년 여름 독일 여행 중 특히 오래 머문 북독일에서는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새로운 모습의 독일을 본 느낌과 또한 여전히 쌀쌀한 독일 사람들인 점에 비해서 무한히 친절한 일본 사람들이 인상적이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일본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중국이나 한국과 전혀 다른 태도를 지닌 이들이 놀랍다고 하니, 시즈오카서 십 년째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얘네들도 자기네들 끼리는 시끄러워요, 정신병도 많고요, 라고 했다.

일본 여행 후 여러가지를 되새겨 본다. ANA 비행기내에서 식사 후 뚜껑까지 고대로 닫아 놓는 모습이며, 레스토랑에서 방에 들어갈 때 벗은 신발을 다시 나갈 때 신는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는 것이며, 모조리 배울 것 투성이로 여겨졌다. 단정하며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는 매력이 일본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 서구인들이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거라 생각된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시골역이나 ferry역, 공원이나 기차나 ferry 화장실까지도 비데와 앞 뒤 씻기가 달린 변기라서 미국 촌사람 노릇을 번번히 해야만 했다. 3주 사이에 익숙해진 일본 화장실 변기는 미국에 오니 그리워지려 했다.

3주동안 달큰하고 짭짤한 생선 위주의 일식을 삼시세끼 먹다 보니 일식은 당분간 스톱하고 싶다. 거금의 JRRail Pass 값을 뽑으려고 하카다까지 갈려고 예정했다가 마음 바꾼 게 지금 와서는 후회된다. 집에 돌아와서는 좀 더 멀리 가보지 못한 쏠로 일본 여행에 나 혼자 한숨을 쉰다. 일생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듯한 비장함이 감도는 깊은 한숨이다.

크로아티아(Croatia) 여행기

김정희 (가정, 60)

북미주동창회에서 만나 친분이 두터워진 후배의 주선으로 두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 Dubrovnik – Split – Plitvice Lake National Park – Lake Bled – Cave – Zagreb 코스로 8일동안 참으로 즐거운 여행이었다.

크로아티아는 지중해 연안 아드리아해 바다를 마주보며 이태리의 동쪽에 위치한 동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하나이다. 따끈한 햇빛, 깊은 청녹색의 바다, 3,500 마일의 긴 해안선, 온화한 기후, 농, 해산물이 풍부하며 높고 낮은 등산이 남북을 가로지르며 사철 눈이 덮여 있는 산맥을 볼 수도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450만명의 인구에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으며 GDP 25% 이상이 관광수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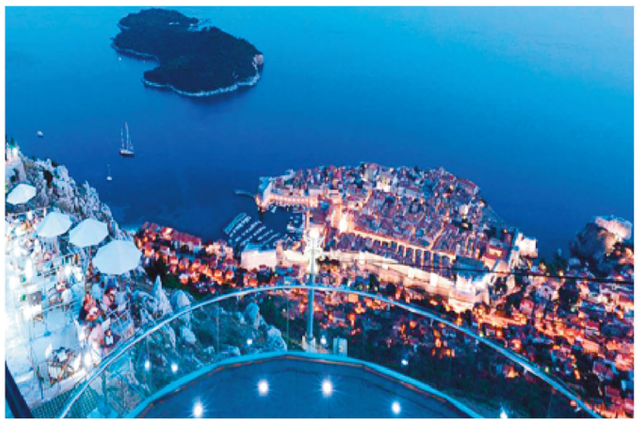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탐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침범도 했고 그 나라의 주권이 여러번 바뀌면서 어려운 시련도 당했으나, 참으로 화려한 문화를 과시할 수 있는 평화스러운 때도 많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맹의 일원이었다가 연방 이탈을 반대하는 세르비아와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며 1999년 독립을 쟁취하여 민주 국가를 세운 것을 국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두브로브니크 (Dubrovnik)

여행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두브로브니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시가와 아드리아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성벽 투어로 유명하다. 코발트 빛 바다와 붉은 주홍빛 지붕이 인상적이었다. 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주 쳐 들어 오는 적을 막기 위해 돌담으로 높은 성벽을 쌓았고, 성을 돌아서 돌을 깔아 만든 길가로 내려가면, 옛 성당과 박물관과 고적들이 눈길을 끌며 이국적인 분위기가 확 들어 온다. 허물어진 Roman Arena, Byzantine Mosaic, Venetian Bell Tower, Habsburg Villas, 공산정치하의 콩크리트 건물까지 그 역사적인 유물들이 사이사이로 엮어져 있었다. 전쟁 박물관에서는 마지막 전쟁 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최후의 일인까지 싸워 나가려 한 처참한 유물들이 방문객들의 가슴을 찡하게 감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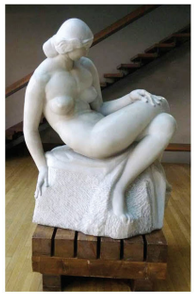
오후에는 작은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갔다. 멀고 가까운 섬들을 가까이 돌면서 도시와 성벽 언덕을 바라보는 것도 절경이었고, 돌산 섬에서 쌍쌍이 엎드려 태양욕을 하는 젊은이들도 낭만적이었다. 햇빛이 쨍 하는 날에는 이나라 해안의 Nude Beach가 대 인기로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모여 드는데, 분홍빛 피부의 젊은 남녀들이 아니고 옷을 입으면 더 나을 은퇴 인구들이 많아 처음 오는 욕객이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작은 배들이 몰려있는 항구로 들어와서 곤돌라를 타고 언덕 위의 전망대로 올라갔다. 눈앞에 보이는 도시, 성곽, 바다와 섬을 반대편에서 보는 전망도 시원했다. 중턱에는 요란스러운 빛깔의 큰 파라솔들로 그늘을 만들어 눈길을 끄는 카페가 있어 함께 앉아 한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해질 무렵엔 저 먼 서쪽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 해가 마지막으로 내 뿜는 것 같은 찬란한 저녁 노을로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스프리트 (Split)

휴양지 느낌의 시원한 해안 도시.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해안 도시인 스프리트는 왕들의 휴양지라고도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해안선, 최고 번화가인 리바거리, 옛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또 스프리트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마리얀 공원. 이곳의 석양이나 야경 또한 꼭 보고 오라고 추천할 만하다. 크로아티아의 로단(Auguste Rodin) 이라고 알려진 Ivan Mestrovic의 조각품들을 대 집성한 박물관이 있고, 그의 작품들은 많은 곳에 산재해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길가 음식점에서 먹어보는 싱싱한 해산물도 좋았지만 통 채로 몇 마리를 담아주는 물오징어도 나누어 먹기에 좋았다.



플리트비체 (Plitviic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감을 푼 곳을 꼽으라면 바로 이곳이라고 말하는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한다. 이 공원은 1949년 처음으로 National Park으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되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30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Niagara 폭포를 곱게 나누어 신록이 우거진 깊은 숲 속에 숨겨 둔 Grand Canyon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구비구비 굴곡이 진 숲 속에 16개의 호수가 청 녹 색으로 수를 놓으며 군데군데 급히 흘러 내리는 폭포가 포기포기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 폭포들은 브라질 이과수 폭포처럼 웅장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시원한 물 맞으러 풍덩 뛰어라도 들고 싶은 현혹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폭포들이다. 낮은 경사의 언덕을 올라가던 중 일행 한 분이 발을 잘못 들여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물이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서인지 툴 툴 털고 일어서서는 그냥 일행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

블레드(Bled)

크로아티아 북쪽 인근 국가 슬로베니아에 알프스산맥의 한줄기를 타고 내려온 호수가의 휴양지다. 호수 위 높다란 언덕 모서리위에 중세기 옛 성이 앉아있고, 그 아래 조그마한 섬에는 박물관 성당과 종탑이 우뚝 솟아있는 그림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여름마다 찾아와서 시나 묵상에 잠기며 대자연과 깨끗한 공기속에 파묻히고 싶은 곳이다.

자그레브 (Zagreb)

동유럽 분위기가 가득한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로 로맨틱한 거리에 지나다니는 트램까지 있어 동유럽의 분위기를 한껏 더 살려주는 것 같다. 클래식한 건물들로 가득찬 반 옐라치치 광장과 꽃 시장으로도 유명하고 자그레브에서 가장 큰 시장인 돌락시장 또 자그레브 대성당과 성마르코 성당은 아주 이색적이고 디자인이 특이하다. 세계에서 유일한 Museum of Broken Relationship 이 있는데 가슴 아프게 깨어진 사랑과 인간 관계의 일화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많은 관객을 끌고 있다.

수필

노망 든 나의 모습은

김명미 (의대, 67)

그날도 제일 먼저 나를 맞이 한 분은 켈리 할머니였다. "하이, 날 보러왔지?" 하며 손을 흔든다. 휠 체어에서 일어나려다 주저 앉으며 묶어 놓은 허리띠를 풀으려 애를 썼다. "야, 이거 풀어" 하며 간호사를 향해 고함을 쳤다. 사과 몇 조각과 크랙커가 놓인 접시를 안고 TV 앞에 무료하게 앉아 있던 할머니들은 켈리 할머니의 고성이 반가운 듯 했다. 모두들 이쪽을 향해 "하이, 닥"(Hi, doc)하며 일제히 나의 입장을 환호했다. 그들은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를 신고, 밥알이나 요구루트로 얼룩진 작은 꽃과 땡땡이 무뉘가 있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손을 잡고 인사를 하노라면 내 손바닥은 소스나 쥬스로 끈끈해졌다. 얼른 사과 한쪽을 집어 권하는 할머니의 축축한 작은 손은 얇고 쪼글쪼글한 피부로 덮혀 있었다.

이 병원은 80명의 환자를 돌보는 양로병원인데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오래된 일층 건물이다. 건물 크기에 비해 커다란 희고 둥근 두 기둥이 문 양쪽에서 이따금 찾아오는 방문객을 맞는다.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테이블 위에 먼지가 뽀얀 조화 장미 꽃다발이 언제나 을씨년스럽다. 새로 개발 되었다는 소독제로 몸을 씻겨서인지 여기 특유의 생소한 냄새는 몇년이 지나도 나의 후각을 괴롭혔다.

10년동안 한달에 한번씩 이곳을 방문하여 환자들과 얘기하고 진찰하는 것이 내 직업의 한 부분 이었다. 입고 있는 흰 가운 덕택에 여기서 내 이름은 "닥 doc" 이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배를 꾹꾹 누룬 후에 눈, 귀, 입안을 살펴보고 '참 좋습니다' 하고 끝내곤 했다. 모든 것에 기억이 희미해도 정기적으로 보살펴 주는 의사는 알아 보는 분들이다. 반가운 사람이라고는 가뭄에 콩나기인 이곳에서 나는 언제나 반가운 존재였다.

켈리 할머니가 이곳에 온지 2년만에 나의 환자가 되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자기 맘대로 이리저리 밀고 다니면서 손에 닿는 물건을 던지고 근처에 서 있는 친구를 밀치고 때렸다. 간호사가 약을 주려고 알약과 물을 가져오면 입을 꼭 다물고, 물을 빼았아 바닥에 쏟아 부었다. 그녀가 발길질을 하며 간호사 팔을 물어 격리시킨 일도 있었다. 몇 십년 베테랑 간호사들도 머리를 흔들 정도로 골칫거리 환자였다. 그래도 진찰하는 동안은 조용하게 시키는 대로 따라 했다. 그녀의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룸메이트를 향해 소리지르고 컵을 던지는 행동 때문에 벌써 여러차례 방을 옮겨야했다.

옆방에 있는 수잔 할머니가 큰소리를 지르거나 화내며 옆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엷은 미소를 띄고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이, 땡큐를 했다. 그녀의 안면에는 엷은 잔주름이 골고루 퍼져있었지만 홍조를 띤 양 볼은 그녀가 노인임을 잊게 했다. 내가 그녀의 앞에 서면 그녀가 말을 할려 할 때 늘상 그렇듯이, 입술 양 옆에 주름이 먼저 움직였다. "하이, 자매님" (my sister) 하면서 웃옷을 번쩍 올리고 숨을 크게 들이 쉬었다. 진찰을 끝내고 '베리 굳, 수잔' 하고 엄지 손가락을 올리면,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갓 블레스 유'란 말을 들려 주었다.

진지하게 의논한 후, 마지막 방법으로 수잔 할머니와 켈리 할머니가 같은 방을 쓰게 배치하기로 했다. 강한 사람이 순한 옆 사람을 해칠까 몹시 심려했던 간호사들의 걱정은 며칠만에 반대가 되었다. 이렇게 천생연분이 또 있을까! 간호사들의 환성이었다. 켈리 할머니는 한방을 쓰는 수잔 할머니를 '내 친구'라 했고 수잔 할머니는 켈리 할머니를 '내 자매'(my sister)라고 불렀다. 누구라도 수잔 할머니를 괴롭힌다고 여기면 자기 일처럼 나선다고 했다. 두 할머니 사이에 오가는 몇마디의 말은 사랑해 (I love you), 행복한 하루 (happy day), 하이 (hi),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God bless you)등이 전부였다. 두 분 다 말을 시켜보면 여전히 동문서답인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한달에 한번씩 하는 회의에서 켈리 할머니의 문제가 매번 안건이 되었었다.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수간호사는 이번 회의를 마친후 오랜만에 일을 잘 끝낼 수 있었다며 만족해 했다. 간호사들은 사람이 저렇게 정반대로 노망이 드는 것은 신비스런 연구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신은 노망이 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냐고 물었다. 자신에게, 나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묻고 있었다.

어느새 뒤 따라 나오면서 닥(doc), 아멘, 땡큐(Thank you), 갓 블레스 유(God bless you)! 마이 시스터(my sister) 라고 외치는 켈리 할머니의 고성이 들려왔다. 노망이 들어서 남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던 가슴에 뭉클한 덩어리가 뜨겁게 올라왔다. 문 옆에 놓여있는 장미 조화가 움직이는 싱싱한 꽃으로 보였다.

결혼 기념일

정춘자 (약대, 60)

바쁘게 지나는 세월 속, 두 사람으로 시작하여 열세 명의 대 가족을 이루고 보니 가족들 생일 챙기기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멀리 사는 세 아들의 가족 생일 전화 걸어주는 일을 가끔은 잊을 수 있다. 물론, 적어 놓긴 했으나 기록한 노트를 일일이 찾아보는 일도 만만치 않다.

나이 드는 만큼 아픈데도 많고 기억할 일도 많은데 깜박이가 켜지면 안개 속을 지나 듯 놓쳐버리고는 혼잣말을 하기가 일쑤다. "어제가 생일이었구나, 또 잊었네" 하면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여기에 분명 키를 두었는데… 오늘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후배들에게 이런 깜박하는 일들을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선배님 그 정도는 준수한 거에요, 젊은 우리도 깜빡 깜빡 하는 걸요." 하며 위로를 해 준다. 나는 항상 잊고 지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결혼 기념일이다. 결혼 기념일을 꼭 챙기는 남편 — 오늘도 화사한 서양 난 화분 하나를 사 들고 왔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이 오늘이지요." 라고 대답하니, "당신하고 내가 결혼 행진곡에 맞춰 손 잡고 행진 한 날이야." 꽃 화분을 내게 전 하면서 남편이 이 무심한 아내를 보고 미소를 짓는다. "어마, 그렇구나! 이 꽃 정말 우아하네요." 칭찬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허그를 해 주었다.

큼직하게 활짝 핀 꽃 여덟 송이와 필 듯 말 듯한 봉오리가 네 개나 달린 우람스러운 양란이다. 우리집 벽에 걸린 포도밭 그림 앞에 놓고 보니, 더욱 예뻐 보였다. 사진을 찍어서 세 아들에게 카톡 카톡 하며 보냈더니, 다들 감탄하며 답을 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꽃 봉오리가 피어날 기미가 없다. 남편에게 봉오리가 피질 않는다고 했더니, "밖에서 볕도 보고 물도 줘야 할 거 아니냐." 고 했다. 아~~ 맞다! 그날 부터 열심히 물을 주었다. 3주가 지나도 여전히 처음 그대로다.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봉오리를 잘못 만지면 뭉개 진다지만 어찌 더 참을 쏘냐… 큰마음 먹고 살살 만져보니 딱딱한 게 잡혔다. 줄기를 들춰보니 뿌리 대신 철사 받침목이다. 진짜 같은 조화였다. 속았구나. 남편도 속았단다. 양란이 많이 장식된 가게 안에 유난히 소담스럽고 눈에 띄게 예뻐서 샀다는 거다.

조화면 어떠랴.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선물 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오래도록 잊고 물을 안 줘도 시들지 않으니 나를 편하게 해주는구나. 세상이 속였지 사람이 속인 것인가! 지금도 거실 창문 앞에서 화사하게 놓여 있는 그 꽃을 볼 때마다 나는 웃음이 절로 나온다.

오레곤에는 동창회가 작지만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친교 위주로 일년에 3~4회 모이고 있습니다. 젊은 동창들은 자녀들을 돌봐야해서 동창회에는 마음만 가입하는 실정이지만, 은퇴하신 동창들이 주축으로 지금까지 동창회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는 오레곤의 신선한 공기와 멋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야유회 모임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사업으로는 Portland State University 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며 한국어과 교수로 활약중인 한영주 동창과 한국어 과정을 장려하기 위해 본 지역 동창회에서 한국어과 장려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포트랜드 지역 회원 중 부동산 소개 전문가로 최민희(화학, 63), 허구희(제시카-영문, 80) 동문이 있으며, 이민 전문 변호사 로윤(법대, 2005) 동문과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 박희원(영문, 2012) 동문이 주류사회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레곤 주 남쪽에 위치해 있는 Crater Lake의 관문인 Roseburg 도시에 살고 있는 박영숙(영문, 71) 동문은 현재 Umpqua Community College에서 교수로 public speech/interpersonal communication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또한 Jasmine's Event Center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진 (도예, 79) 오레곤 동창회 회장

도예작가로 1998년부터 포틀랜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동창은 오레곤 도예작가(Oregon Pottery Association) 회원이며, 해마다 Convention Center에서 작품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Jeannie's Studio에서 도예작가 활동을 하며, 도자기 강습과 부전공인 꽃꽂이 디자이너로 꽃꽂이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울산 자매도시 회원으로 봉사하며, '아시안보건복지센터'에서 6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한인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고, 1년전 은퇴 후에도 '아시안보건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며 Power Tool Class (정부산하 간병인 교육) 한인 담당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hicago
시카고

시카고 지역 이화여대동창은 동창들의 참여도가 높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을 이어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오구미(의대, 76) 회장을 비롯한 신임회장단이 힘찬 행진을 시작했다. 가을과 봄 두차례 정기 이사회가 있었고, 시카고 서부 교외에 위치한 Morton Arboretum으로의 가을 나들이와 국악연주와 Raffle 등으로 흥겨웠던 성탄/연말파티가 있었다. 그리고 매년 5월의 '이화의 밤' 연례총회 행사 등을 헌신적인 임원과 여러 이사들의 참여로 순조로이 치루었으며, 6월에 있을 '대선배모시기'로 회계년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지난 2년간 수고하신 이풍자(영문, 62) 이사장의 후임으로 오유심(의대, 76) 동문이 선임되었다.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Aging & Anti-aging in Aesthetics (김은경, 의대, 78), 올바른 약 사용법 (국중석 박사), Serving underprivileged (Jess Park) 등 여러 주제의 강의를 통해 안목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년째가 되는 이화여대 동문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동문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역 장학 사업 및 Outreach Award를 동창회의 주요 사업으로 더욱 체계화하고 정립하기 위하여 시카고 동창회 회칙 개정 및 통과시키고 이를 위한 기금 조성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동문 활동 소식으로는 시카고 한인회가 주최한 '3.1절 100 주년 기념식'에서 구광자(가정, 67), 오유심(의학, 76) 동문이 봉사상을 받았다. 또한 박순자 (국문, 67), 성유나 (영문, 79) 동문이 각각 시카고 한인여성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 되었다.

박순자(국문, 67) 동문은 지난 6월 6일에 시카고 한인 여성회 제 1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꿈과 사랑을 실현해나가는 지혜로운 여성들" 이란 슬로건으로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여성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Las Vegas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동창회는 정기모임과 교양강좌 등 부부 동반으로 화기애애한 모임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에는 라스베가스 지역 Korean Fellowship Lutheran Church에서 김명미(의학, 67) 동문의 "아름다운 대화의 기술을 통한 뇌건강 활성화, 사람을 얻는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한 특강을 들으며, 많은 동문들과 이곳 라스베가스 지역 교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년 파티: 12월 8일 (토요일) 30명(부부동반)이 모여서 동문들의 숨겨놓았던 노래 실력도 과시하고 선후배간의 돈독한 우애를 나누었다. 또한 새해부터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인 깨우침도 게을리하지 않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다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마감했다.

Calgary
캘거리

안녕하세요, 북미주 동창 여러분! 유난히 길고 지루했던 지난 겨울을 보낸 캘거리에서 신의 절묘한 선물같은 봄날을 맞아 안부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북미주동창회 연례총회 및 록키여행으로 결성된 캘거리 이화동창모임(일명 이화랑)도 어느 덧 4년차에 접어들어 그 어떤 모임보다 탄탄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중 4차례 공식 모임을 가지고 있고, 올 4월에 있었던 정기 모임에 이기용선배님(약학, 64)를 비롯한 신입회원이 5분 새로 참석하셨고, 작년에 이어 이사장 황명선(사학과, 65) 이하 회장 전광숙(사회사업, 69), 부회장 김안나(영어교육, 83), 총무 조미라(법학, 89), 회계 김수연 (과학교육, 90) 등이 임원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송년모임이 부회장댁에서 있었으며, 이로 인해 캘거리 이화동창모임은 더욱 가까워졌고 올해는 가까운 공원나들이를 함께 하려합니다. 또한 올 6월 15일에 열릴 캘거리 한인 합창단 10주년 콘서트에는 김안나 부회장, 박보나(특수교육, 89) 그리고 새로 등록한 막내 배희경(의류직물, 95) 등 3명이 한인 합창단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어, 캘거리 이화동창모임에서 축하의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속 회원 중 합창단 지휘자가 계셔서 조만간 이화랑 중창단이 결속이 될 희망도 가지게 되어 여러모로 알차고 즐거운 모임이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Washington D.C
워싱턴 D.C.

박선영 (가정, 66)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원으로 취미로 사진 공부를 하고 있으며, 현재 '메릴랜드 한인 사진가협회' 회장을 맡아서 사진촬영, 포토샵, 동영상 만들기 등 기초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틈틈이 회원들과 함께 작품활동을 하고, 매년 회원들의 전시회를 열어 '메릴랜드 한인회' 행사에 협력하고, 시니어센터에서 장수사진 촬영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정화 (조소, 82)

워싱턴 D.C.한미 미술가협회 회장을 맡은 김정화 동문은 도미 후 조각과 금속 장신구 등으로 작품 생활을 하며 미국, 한국, 홍콩 등 활발한 전시 활동을 하고있다.

워싱턴 미술가협회는 2019년에는 한국 문화원 ,아나폴리스 전시, 한국 인천 미술가 협회와의 한국 교류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하와이 미술가 협회와의 교류전시, 중국 문화원 전시를 준비하고있다.

Korean Metal Art: Techniques, Inspiration, and Traditions

한국 금속 미술: 기법, 영감, 전통

김홍자
(섬예, 58입/07졸)

한국 전통 금속 공예기법과 전통 문화를 3세기부터 21세기까지 소개하며, 박물관 13곳의 유물 200 여점과 전통 금속 공예기법을 연구해온 무형 문화재와 금속 장인들의 작품 및 전통 기법을 작품에 응용한 115명의 현대작가 작품 200여점을 예시작으로 보여주고,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금속 유물에서 발전되어 전통 혼례 예법에 사용되고 있는 현대 공예품들을 통하여, 한국 금속 공예기법, 의미, 전통, 전례를 소개한 전문서적이다.

"자세하게 소개된 예시작들과 역사 외에도 한국 전통기법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첫번째 책이다"

3세기 부터 시작된 이 전통 기법들은 현대 금속미술 세계에서 독보적이지만, 이 기법들의 제작 방법을 찾아내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다. 이 책에 예시된 박물관에 소장된 금속 유물들이 포함된 400여점의 이미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 은, 옥 등의 재료로 제작된 작품들은 수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기법으로 제작된 귀중한 작품들이다.

김홍자 지음
OKIM, Komelia Hong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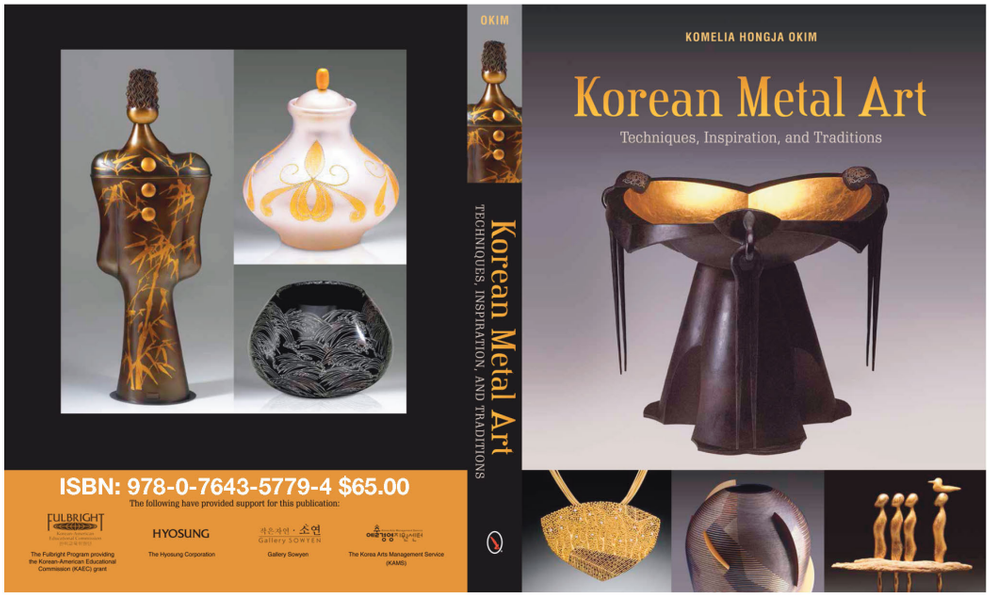
저자 소개

저자 김홍자(Okim, Komelia Hongja)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에 위치한 몽고메리대학의 금속 미술과에 42년간 (1983-2014) 재직해왔으며, 현재는 명예 교수이다. 국제적으로 30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영국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을 비롯하여 미국 뉴욕의 아트 앤 디자인 박물관, 호놀룰루 박물관,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렌윅 아메리칸 박물관, 한국의 국립 현대 박물관 등 세계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그는 세번의 풀브라이트 국제 교육 재단의 교환 교수, 학자로 선정되어, 한국의 홍익 대학교와 원광 대학교에서 미국의 금속 미술을 가르치며, 한국 전통 금속공예기법에 대한 연구와 실습을 했으며, 미국 외 캐나다, 중국, 프랑스, 노르웨이, 러시아, 타이완 등 각 지역의 대학교와 공예 전문학교에서 130여회의 강연과 워크샵을 통하여 한국 전통 금속공예 기법을 소개하였다.

저자는 한국 이화 여자 대학교에서 섬유 미술 전공으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부루밍톤 소재) 2학년 부터 섬유 미술과 금속 미술 전공으로 학사를 마친 후 3년 과정의 금속 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8년에 한국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 학사 학위를 받았다.

Published by Schiffer Publishing, Ltd.
4880 Lower Valley Road
Atglen, Pennsylvania 19310
Phone: (610) 593-1777
Fax: (610) 593-2002
E-mail: Info@schifferbooks.com
Web: www.schifferbooks.com
Designed by Molly Shields
Cover design by Brenda McCallum
Type set in Credit Valley/Cambria
ISBN: 978-0-7643-5779-4
Printed in China

ISBN: 978-0-7643-5779-4. $65.00:
Hard Cover; 8.5 x 11 inches
9 780764 357794 56500
Copyright © 2019 by
Komelia Hongja Okim (김홍자)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9936465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19 년도 임원 명단

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역
이사장	최 경 숙	(영문 66)	Galloway, NJ
회장	박 정 옥	(의대 71)	Los Angeles, CA
부회장	이 풍 자	(영문 62)	Chicago, IL
준비위원장	조 효 은	(교육 71)	San Diego, CA
사무총장	임 성 숙	(물리 81)	Los Angeles, CA
총무	안 정 옥	(의대 73)	Los Angeles, CA
서기	최 영 실	(기독교 03)	Los Angeles, CA
	이 정 화	(수학 81)	Chicago, IL
회계	하 양 신	(의류직물 87)	Chicago, IL
감사	윤 중 식	(의대 59)	Chicago, IL
	홍 명 희	(의대 69)	Chicago, IL
자문위원	김 정 희 *	(가정 60)	Chicago, IL
	한 영 숙	(영문 60)	Los Angeles, CA
	장 명 주	(의대 77)	Sioux Falls, SD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김 계 자	(신방 65)	Las Vegas, NV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공천위원	장 명 주 *	(의대 77)	Sioux Falls, SD
	조 효 은	(교육 71)	San Diego, CA
	민 경 해	(영문 65)	Vancouver, BC
	권 오 화	(가정 61)	Chicago, IL
	박 정 옥	(의대 71)	Los Angeles, CA
모금위원	한 영 숙 *	(영문 60)	Los Angeles, CA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장 명 주	(의대 77)	Sioux Falls, SD
	오 구 미	(의대 78)	Chicago, IL
재정운영위원	김 정 희 *	(가정 60)	Chicago, IL
	최 경 숙	(영문 66)	Galloway, NJ
	박 정 옥	(의대 71)	Los Angeles, CA
	김 희 영	(피아노 75)	Chicago, IL
	하 양 신	(의류직물 87)	Chicago, IL
회칙개정위원	최 경 숙 *	(영문 66)	Galloway, NJ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이 주 연	(의대 59)	Plano, TX
	김 정 희	(가정 60)	Chicago, IL
	조 효 은	(교육 71)	San Diego, CA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김 영 희	(약학 68)	Chicago, IL
사회봉사부	한 현 숙 *	(사복 62)	Minnesota, MN
	강 영 숙	(약학 60)	Troy, MI
	오 금 녀	(영문 49)	Minnesota, MN
음악부	김 희 영 *	(피아노75)	Chicago, IL
	김 원 숙	(작곡 69)	Los Angeles, CA
	김 소 영	(불문 63)	San Diego, CA
	윤 미 라	(기악 60 입)	San Diego, CA
연예부	구 은 서 *	(간호 73)	Chicago, IL
	심 재 희	(체육 90)	Chicago, IL
	현 주	(약학 55)	Los Angeles, CA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역
예배, 선교부	안 정 옥 *	(의대 73)	Los Angeles, CA
	장 금 자	(간호 61)	Clearwater, FL
	강 영 숙	(약학 60)	Troy, MI
	서 동 주	(도예 82)	Chicago, IL
	최 영 실	(기독교 03)	Los Angeles, CA
홍보부	권 오 화 *	(가정 61)	Chicago, IL
	조 정 기	(의대 66)	Madison, WI
	이 동 우	(영문 57)	Hernando, FL
	윤 용 임	(의대 64)	Rifton, NY
	이 삼 희	(가정 68)	Las Vegas, NV
	안 미 사	(신방 67)	Temecula, CA
	권 영 애	(의학 64)	Las Vegas, NV
	박 선 영	(가정 66)	Washington, DC
	김 춘 지	(건강교육 67)	Lewisville, TX
	문 경 자	(건강교육 67)	Philadelphia, PA
	한 진 혜	(약학 74)	Minneapolis, MN
	전 광 숙	(사회사업 69)	Calgary, Canada
	김 평 화	(사회학 68)	Portland, OR
	홍 순 조	(사학 68)	Riverside, CA
회원부	성 유 나 *	(영문 79)	Chicago, IL
	한 수 강	(영문 65)	Las Vegas, NV
	안 영 설	(의대 64)	Rome, NY
	홍 명 희	(의대 69)	Chicago, IL
	김 초 영	(사생 60)	San Francisco, CA
	민 창 순	(간호 84)	Chicago, IL
	서 윤 순	(작곡 79)	Minneapolis, MN
	김 정 순	(약학 61)	Las Vegas, NV
	남 금 자	(약학 65)	Los Angeles, CA
	김 안 나	(영문교육 82)	Calgary, Canada
	박 향 자	(가정 66)	Washington, DC
	홍 옥 선	(교심 75)	Washington, DC
장학부	조 효 은 *	(교육 71)	San Diego, CA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이 춘 자	(약대 62)	Los Angeles, CA
	고 순 정	(의대 77)	Los Angeles, CA
	윤 중 식	(의학 59)	Chicago, IL
	윤 영 희	(의대 70)	Welsh, LA
	장 현 자	(의대 67)	Los Angeles, CA
	박 정 옥	(의대 71)	Los Angeles, CA
교육부	김 영 미 *	(교심 72)	Philadelphia, PA
	김 영 희	(약학 68)	Chicago, IL
	정 해 주	(약학 67)	San Diego, CA
	호 진 희	(가정 68)	Los Angeles, CA
	윤 방 순	(정외 69)	Seattle, WA
	배 계 자	(의대 66)	Los Angeles, CA
	이 풍 자	(영문 62)	Chicago, IL
	민 해 성	(약학 76)	Chicago, IL
미술/사진부	김 홍 자 *	(섬예58입07졸)	Washington, DC
	박 선 영	(가정 66)	Washington, DC
	오 구 미	(의대 78)	Chicago, IL
	정 옥 지	(동양 65)	Washington, DC
	이 희 자	(실내장식 65)	Washington, DC
	서 동 주	(도예 82)	Chicago, IL
	조 미 라	(법대 89)	Calgary, Canada
편집부	임 성 숙 *	(물리 81)	Los Angeles, CA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최 경 숙	(영문 66)	Galloway, NJ
	김 정 희	(가정 60)	Chicago, IL
	이 정 순	(화학 57)	Chicago, IL
	최 영 실	(기독교 03)	Los Angeles, CA

* Chair person

Program Schedule

9월21일 (토)

2:00 pm ~	등록 (DoubleTree Hilton, Portland)
3:00 pm ~ 5:00 pm	이사회
5:00 pm ~ 6:30 pm	저녁식사
6:30 pm ~ 7:30 pm	만남의 시간
7:30 pm ~ 9:30 pm	의대 미팅 / 부서 미팅

9월22일 (일)

6:30 am ~ 7:45 am	아침식사
8:00 am ~ 8:45 am	예배
9:00 am ~ 11:30 am	Workshop
12:00 pm ~ 2:00 pm	점심식사 및 Int'l Rose Test Garden
2:00 pm ~ 4:00 pm	시내관광
5:30 pm ~ 10:00 pm	총회 / Gala Dinner & Dancing

9월23일 (월) *Day -1*

6:00 am ~ 6:30 am	새벽 예배
6:30 am ~ 7:45 am	아침식사
8:30 am ~ 1:30 pm	Cannon Beach / 점심식사
1:30 pm ~ 5:00 pm	Scenic Tour Along the Coast
5:00 pm ~ 6:00 pm	Hotel Check-In (Agate Beach Inn)
6:00 pm ~ 7:00 pm	저녁식사
7:30 pm ~ 9:30 pm	Bonfire on the Beach

9월24일 (화) *Day- 2*

6:00 am ~ 6:30 am	새벽 예배
6:30 am ~ 7:45 am	아침식사
9:00 am ~ 1:30 pm	Roseburg / 점심식사
1:30 pm ~ 5:30 pm	Crator Lake National Park
5:30 pm ~ 8:00 pm	Bend / 저녁식사
8:00 pm ~ 9:00 pm	Hotel Check-In (Peppertree Inn)

9월25일 (수) *Day- 3*

6:00 am ~ 6:30 am	새벽 예배
6:30 am ~ 7:45 am	아침식사
8:30 am ~ 1:30 pm	Hood River / 점심식사
1:30 pm ~ 4:00 pm	Multnomah Falls / Columbia River / Crown Point Scenic Tour
5:00 pm ~	Portland 공항/호텔 drop off

2019년 임원 이사회 Agenda

Date: September 21 (토요일)

- 개회선언
- 이사소개
- 2018년도 회의록 보고 및 인준
- 사업보고
- 결산 및 예산안 심의
- 공천위원회 보고
- 차기회장/ 차기 부회장 인준
- 2020년도 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 기타 안건 및 공지사항
- 폐회

2019년 총회 Agenda

Date: September 22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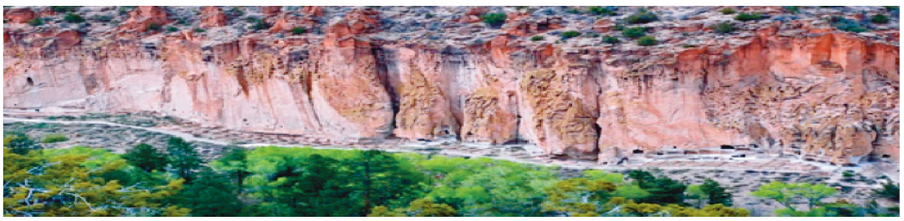
- 개회 선언
- 교가 제창
- 회장 환영사
- 이사장 인사
- 회의록 낭독
- 이사회 토의 사항 보고
- 의료원 보고
- 차기 회장 인사
- 2020년도 총회장소 발표
- 기타 안건 및 공지사항
- 폐회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2020 Annual Conference & Tour

Albuquerque, New Mexico

2020년 제20회 북미주 동창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곳인지 궁금하시지요? 이곳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험한 돌덩이 안에 숨어있는 diamond와 같은 곳 이라 할 수 있습니다. New Mexico 주는 미국 5 개의 주와 접경해 있고 Mexico 와 국경을 나누며, 미국에서 6번째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주 입니다. Albuquerque에서 연례 총회를 마치고, 추가 여행으로 고산지대에 끝이 없는 평원과 사막이 공존하는 다양한 자연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Albuquerque / Sandia Peak Tramway

Experience the pulsing heart of New Mexico in Albuquerque, the hot air balloon capital of the world. Situated on the iconic Route 66, Albuquerque offers authentic New Mexican cuisine–featuring the famous local green chile–along with New Mexican culture and history. Located at the eastern edge of Albuquerque is the Sandia Peak Tramway, the longest aerial tram in the United States. The Tram has taken more than 11 million passengers on its 2.7-mile track above breathtaking terrain, from deep canyons to the top of Sandia Peak.

Santa Fe

The history of Santa Fe dates back to its founding in 1610 as a Spanish colony, which can still be experienced in the winding streets of its historic district. The Palace of the Governors is an adobe structure built the year the city was founded, and still stands today. One of the creative capitals of the country, Santa Fe boasts countless art museums and galleries, making it a major destination for international art collectors, as well as many venues and theater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magnificent natural landscape surrounding the city colorful and vibrant, serving as the perfect backdrop for the outpouring of artistic energy for which Santa Fe is so famous.

Bandelier

Bandelier National Monument is a source of important parts of the anthropology of North America. Home to numerous significant archaeological sites dating back over 10,000 years, it contains prehistoric petroglyphs, cliff dwellings dating back many centuries, and subterranean religious structures of the ancestral Puebloan peoples. Among the sites of archaeological interest are the multistory dwellings carved out of the canyon walls and decorated with intricate paintings, as well as the kiva ceremonial rooms built underground and accessible by ladder.

Rio Grande Gorge Bridge / Taos

The Rio Grande Gorge Bridge was initially known as the “bridge to nowhere” when it was being built, as there was no funding to continue the road on the other side–but it has since become a recognizable landmark, being featured in many films over the years. Nearby is the town of Taos, one of America’s foremost art colonies and home to the Taos Pueblo UNESCO World Heritage Site. Located in the majestic landscape encompassing the Rocky Mountains and the Rio Grande Gorge, Taos offers the raw, natural beauty of the Southwest.

Tent Rock

Kasha-Katuwe Tent Rocks National Monument is located around 6,000 feet above sea level on the Pajarito Plateau. The site is home to cone-shaped “tent rock” formations which are the products of volcanic eruptions that occurred six to seven million years ago. These geological phenomena were formed over time through erosion, which created picturesque narrow slot canyons–just wide enough to walk through–and strikingly shaped tent rocks, which range in size from just a few feet to as high as 90 feet in the air.

Midwest Pain & Rehabilitation

Tel: 605-275-3070

Fax: 605-275-3071

Dr. Myung J. Cho MD. DABMA

Medical Director

Chronic Pain Management *Medical Acupuncture*

Physical Therapy

Located in the Independent Medical Arts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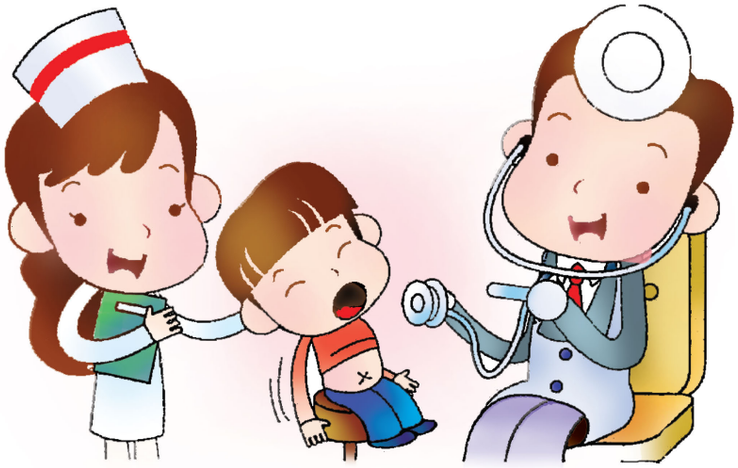
6709 South Minnesota Ave. Suite 201 Sioux Falls, S. D. 57108

장명주 (의대, '77)

안정옥 (의대, '73)

New Light Medical Group

PEDIATRICS



1716 W. Medical Center Drive
Anaheim, CA 92801
T: (714) 635-0600
F: (714) 635-0610

760 S. Washburn Ave. Suite 21
Corona, CA 92882
T: (951) 734-8000
F: (951) 734-8096

Our Exchange Number:
(714) 447-7397

"당신의 한국을 맛보세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선한 제품을 가장 빠르게 공급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왕글로벌넷은 "왕"의 이름으로
다양한 우리 식품개발에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이제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찾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원료 선정에서부터 제조, 가공, 포장, 공급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지속 될것을 약속 드립니다.

wang KOREA **WANG GLOBALNET**

이대서울병원은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설립 정신을 구현한 환자 중심 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건강한
변화의 시작

새로운 개념의 환자중심 병원인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4170 Alamo St. Simi Valley, CA 93063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ANOGA PARK CA
PERMIT # 488

EUMC SEOUL
이대서울병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

이대서울병원

국내 대학병원 최초 기준병실 3인실 및
전체 중환자실 1인실, 수술실 통합 시스템 '스마트 수술실' 등을
실현한 환자중심 병원으로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합니다.

해외 동창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이화 동창 및 동창 가족을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 할인 혜택
- 해외 동창을 위한 특별 검진 프로그램 운영
- 제휴 호텔 이용 시 객실료 할인
- 의료원 방문 시 전담 직원 안내 및 의전 서비스
- 숙박 검진 및 의료원 투어 프로그램 제공
- 이상 소견 시 당일 진료 의뢰 및 빠른 결과 회신

상담 및 예약

이대목동병원 | 02-2650-5114
이대여성암병원 | 02-2650-5990~3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 02-2650-5117
이대서울병원 | 1522-7000
웰니스건강증진센터 | 02-6986-2222~4
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 | 02-6986-5802~3